

스포츠 포교 적극 나서자

2006 독일 월드컵이 시작되기 며칠 전, 골키퍼 선수도 수행자들이 구성된 월드컵 응원단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결단식을 하고 응원가에 맞춰 신나게 꼭짓집 댄스를 춘다. 이어 선무도를 상징하는 로고나 캐릭터가 새겨진 퓨전 승복을 맞춰 입고 독일로 가 주요 지역을 순례하면서 선무도를 응용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그리고 이 모습이 주요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된다.

가상이다. 그러나 가상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은 5월 18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스포츠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2차 포교정책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 김학신씨(세종대 강사)는 '월드컵과 스포츠 그리고 불교'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월드컵의 이미지를 활용한 불교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포츠 스타마케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이번 월드컵에 불자인 박지성 선수가 가슴에 한국불

조계종 포교원 포교활성화 정책연찬회 개최 '월드컵 활용' '종목별 지도자 배출' 등 제안

교를 상징하는 로고나 캐릭터를 그린 옷을 입고 골을 넣는다면 전 세계 60억 명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학신씨는 '스포츠 시설 및 팀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통일교의 일화축구단과 같은 프로팀을 불교계에서도 운영하면서 유명 스포츠스타를 육성해 대중 프로모션을 창출하고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면 수백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노출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신씨는 경주마라톤대회나 골키퍼 선무도 등 '스포츠 이벤트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도 필요하며, 종단에서 테마파크나 리조트, 골프, 스키장, 연수 및 교육시설 등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김학신씨는 이러한 사업의 바탕으로 종단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주목했다.

이에 비해 김창섭씨(경희대 강사)는 '스포츠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했다.

김창섭씨는 먼저 조계종 산하에 스포츠 포교부(법인화) 운영을 제안했다. 가장 '붓다 여가스포츠 연구원'을 설립해 불교계 스포츠 포교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섭씨는 불교계 기관 및 사찰, 불교대학에서 종목별 스포츠 지도자를 배출해 스포츠 포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스포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섭씨는 또 △붓다스포츠 문

화센터 건립 및 스포츠 동호인 클럽 육성 △연예인들로 구성된 불자스포츠부 결성 △일반학교 운동부와 자매결연을 통한 선수행 프로그램 운영도 스포츠 포교 방편으로 내놓았다.

김창섭씨는 특히 "태릉선수촌 선수 및 프로 스포츠 스타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불자 스포츠 스타를 위한 온·오프라인 모임 '붓다 서포터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연찬회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서울 법원사 주지 보경스님은 전문 스포츠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시스템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종단적인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외에도 박경민 선무도 울산 지원 지도법사, 매년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호산스님, 한명종 경주남산산길마라톤 대회 상임운영위원장은 선무도, 스노보드, 마라톤 대회 등을 통한 스포츠 포교 사례와 효과에 대해 설명한 뒤 스포츠 포교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 관통로 보상비로 환경연구소 설립한다

지난해 사용자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북한산관통도로 보상비가 수행환경과 사찰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펼칠 연구소 설립기금으로 활용된다.

조계종 사회부와 남양주 봉선사, 의정부 회룡사, 불교환경연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관계자들은 5월 15일 북한산관통도로 보상비로 불교사상과 이념의 보편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환경사회연구소(가칭)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설립기금으로는 보상비 20억원 가운데 18억원이 투입

된다. 나머지 2억원은 북한산관통도로 반대운동 당시 회룡사가 진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이들은 환경사회연구소 설립을 위해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세영스님과 봉선사 종책실장 송묵스님을 공동대표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초격스님,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 부회장이 위촉됐다. 회룡사측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회룡사는

제외됐다. 추진위원회는 환경사회연구소를 설립할 때까지 세부계획안과 정관·조직구성안 마련, 법인 설립 및 연구소 개소를 위한 제반 행정업무 등을 총괄한다.

올 8월에 사단법인으로 개소될 환경사회연구소는 불교환경사상을 현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해, 수행환경의 이론적 기준 마련, 사찰생태조사 등의 연구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5월 16일 관계자들의 안내로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이찬수 교수 해직 시대착오적 발상”

“강남대 이찬수교수 해직 사태는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학교 설립목적인 개화인과 기독교인 만들기라는 이중목적에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식을 답습한데서 연유한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5월 17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사립대학내 종교자유와 교수 권리보호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김경태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찬수교수 해직 문제가 구태의연한 '개화기 시대' 기독교계 사립학교 운영관행을 지속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와 현대사회’라는 교과과목을 강의한 이찬수 교수에게 기독교만을 강의하거나 기독교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부당직하고 방법론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에 나선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다원성을 인정하지않는 종교적 자유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에서 설립된 대학이 기독교이념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며 보장되어야 할 종교자유이지만,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만의 종교자유는 독선과 독단을 넘어서 타종교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원주의는 단순히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인식론적 관점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실천명제”라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평화 월드컵 기원 4대 종교 축구대회

이웃종교인과 함께 어우러져 2006 독일 월드컵 성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축구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은 5월 25일 과천 권문체육공원에서 '2006 월드컵 성공기원과 평화를 기원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사회부, 천주교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 기독교교회협의회 교교회일치위원회, 원불교 중앙총부 사회부가 각 종교 대표로 참가하며, 문화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가 후원한다.

이날 대회는 25명으로 구성된 4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

“사찰 재산권 무시” 항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5월 18일 용화사가 '케이블카 공사가 수해권과 토지소유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통영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각사유에 대해 '케이블카 선로 일부가 지나가는 사찰소유 입야 일부가 사찰의 불교의식과 승려의 수행, 생활에 필요한 경내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케이블카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사찰 미관상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통영시가 별다른 절차 없이 사찰 소유 입야를 점유해 공사를 하는 점은 비난받을 수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 사회부는 판결 직

후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된 사찰 재산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봉영 기자

불교복지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마련 학술포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이용권 국장 연구소장)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불교사회복지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불교사회복지사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불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등을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한다. 중앙승가대 김용원 교수,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고강호 부장이 발제한다. (02)723-5101-2 이은비 기자

“황우석 지지 변함 없다”

범불교연대

검찰이 5월 12일 황우석 박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황우석 박사를 지지해온 단체들은 명예회복과 연구재개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석팀 연구재개를 위한 범불교연대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며 변함없는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위해 600여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석지킴이불자모임도 5월 15일 국민홍보단 결성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연대와 아이러브황우석 등도 집회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검찰 수사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법전 스님 거제 조선소 산업시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산업현장 시찰과 거제 포로수용소 방문 등 공식행사가 아닌 잇단 바깥나들이로 불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전 스님은 5월 16일에는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종정 스님이 민간기업의 산업현장을 시찰 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전 스님은 김경완 사장의 안내로 조선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선박 역사박물관과 선박

건조현장을 둘러본 후 “작업에 안전을 기하기를 바란다”며 조선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17일에도 법전 스님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등과 함께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수용됐던 거제 포로수용소를 방문, 위령탑을 참배했다. 법전 스님은 위령탑 앞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포로로 수용된 중에도 이념적 갈등에 휩싸여 희생됐던 수많은 영령들을 위로했다. 천이희 기자

관자재불교병원 부지서 후원자 위한 작은 음악회

관자재불교병원 건립을 앞두고 있는 청원 정토마을(원장 능행)이 그간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후원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연다. 정토마을이 개최하는 ‘작은 음악회’는 6월 3일 오후 3시 관자재불교

병원이 들어설 울산시 언양마을 부지에서 조촐하게 열릴 예정이다. 음악회와 사물놀이, 국악,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이 펼쳐지며 참가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마련돼 있다.

지난해 10월 울산에 부지를 매입한 정토마을은 불교호스피스 요양시설인 관자재불교병원 건립공사를 올해 7월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043)298-2258 이은비 기자

세계불교 범왕청 초대 범왕

일불 서경보 존자 열반 10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불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범왕청 설립 초대범왕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을 창종하신 일불 서경보존자의 열반 10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불 존자 열반 10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

일시 : 불기 2550(2006)년 6월 4일 (음 5.9) 일요일 오전 10시

장소 :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본산 의령 봉황산 일불사 (一鳳寺)

연락 및 문의처
1)서울총무원 : 전화 02)998-8161, 2 전속 02)998-8384
2)의령일불사 : 전화 055)572-7777
3)문도회 : 전화 054)633-1138
4)각교구총무원 및 일불관계단체

홈페이지 : http://ilbung.org

- 증명 : 봉해 대종사, 조혜태대종사
- 고문 : 각종단 종정, 대덕 큰스님, 정금봉(장로원장) 김명중(장로부의장), 유청송, 염원각, 송원경, 이송은, 박수암등 장로위원, 김도암(국제승가회장), 한화란(금강선원총재), 나황정, 황원광, 찰스메르시에카(미국IAEUP총재), 원의범(일불삼장대학원장), 홍학암
- 지도위원 : 김혜운(일불사 주지)
- 지도위원 : 이무성, 김진권, 김덕수, 송월성, 박해강, 장삼준, 최성기, 김창락, 남강수, 이무용
- 봉행위원장 : 엄지공(총무원장)
- 봉행부위원장 : 김원각(교육원장), 최혜천(총무원부위원장), 서병렬(문도회사무총장), 김민덕(법사단부이사장)

- 추진위원장 : 김화업(중앙총회의장)
- 추진부위원장 : 이정수(포교원장), 박도안(종회사무처장) 최혜숙(수도사회장), 권기태(일불사 반야회장), 배맹자(일불사 약사회장), 정금조(일불사 지장회장)
- 기획위원장 : 최용암(호계원장)
- 집행위원장 : 정병성(감사원장)
- 동원위원장 : 최해동(선거관리위원장)
- 각교구동원위원장 : 대우(부산교구), 석담(대구교구), 유정(인천교구), 도안(대전교구), 도현(울산교구), 법해(경기남부), 도혜(경기북부), 보해(강원동부), 동청(강원서부), 정수(경남교구), 해동(경북교구), 혜성(전남교구), 영명(충남교구), 경운(제주교구) 서울교구, 충북교구(총무원직할)
- 분과위원장 : 총무분과-영명(총무부장), 재무분과-유정(재무부장), 의전분과-지언(교무부장), 섭외분과-혜공(포교부장), 봉사분과-원덕(사회부장), 홍보분과-대호(홍보부장)/ 경호분과-지성(규정부장)

■ 주최 :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일불사 ■ 주관 :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무원,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이사회, 세계평화불교연맹호국법사단, 대한불교 일불문도회 합장